

3일간 5만명 'KT 엑소더스'… SKT, 실적회복 신호탄 쏘나

KT이탈 5만명 중 60% SKT 이동
LG U+에 1.3만, 알뜰폰 7000명

SKT, 해킹사고 영향 3분기 반영
4분기부터 본격 실적회복 기대감

KT발 번호이동이 다시 통신시장 변수가 되고 있다. 해킹 사태 이후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었던 SK텔레콤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면서, 최근 나흘간 KT를 떠난 가입자 5만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SKT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해킹 여파로 빠져나간 가입자 규모에 비하면 아직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5만2661명이다. 이 가운데 61%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동한 가입자는 ▲SKT 3만2336명 ▲LG유플러스 1만2939명 ▲알뜰폰(MVNO) 7386명이다.

해킹 사태가 알려지기 전인 3월 SKT에서 KT·LG유플러스·MVNO로 이동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

한 가입자는 12만6171명에 그쳤다. 그러나 사태가 처음 불거진 4월에는 이탈 규모가 23만7001명으로 급증했고, 5월에는 44만490명까지 치솟았다. 6월 들어 20만7847명으로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지만,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된 7월에는 다시 35만2230명이 SKT를 떠났다. 이로써 4월부터 7월까지 누적 이탈자는 123만7568명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KT·LG유플러스·MVNO에서 SKT로 이동한 가입자는 51

만7395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해킹 여파가 실적에 반영된 지난 3분기 SKT는 전례없는 실적악화로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SKT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3조978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순손실은 1667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T발 번호이동

대란은 SKT는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치며 신년 번호이동 고객잡이에 나섰다. 1월 15일까지 가입한 신규 고객에게는 1만9000원 상당의 쿠폰팩을 지급하며, 3월 말까지 건강검진 최대 49% 할인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 T데이 기간에는 치킨, 장보기, 놀이공원 등 실생활 밀착형 할인을 제공하고, 만 13~34세 고객을 대상으로는 0데이를 통해 뮤지컬 및 전시회 초청 등 문화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거 특정 기간에 해지했던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이전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고객 관리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해킹 여파가 3분기 중 대부분 반영된 만큼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3분기에 해킹 관련 일회성 비용을 대부분 털어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용 청산이 끝난 4분기부터는 순증 가입자가 실적에 직접 반영되어 뚜렷한 텐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 2026년에는 영업이익과 배당 모두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영향은 3분기 실적에 대부분 반영됐으며, 2026년에는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AI·데이터센터(DC)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프레셔 인플루언스(Pressial Influence) 등 신사업 성과가 실적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AI DC와 AI 사업이 실적에 기여하면서 2026년에는 영업이익과 배당 모두 2024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KT발 번호이동 규모가 과거 이탈한 120만 명의 가입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추된 브랜드 신뢰도를 단기적인 혜택 만으로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가입자 유입 규모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꼬집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제2 홈플러스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민주당 정책위, PEF 감독강화 등 내용
한정애·유동수, 각각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업무집행사원(GP)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사모펀드 M 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

원회와 이루어진 당정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감독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잠재성장률 반등, 韓 대도약 원년 돼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신년사



강회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6년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을 통한 동반 성장 ▲리스크 관리

/세종=김연세 기자 kys@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

월 최대 8.7만원 오른 459만원

새해부터 수십억원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오른 금액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0.1%p 오른 7.19%로, 직장·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비는 16만699원으로, 전년 15만8464원에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

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전년 8만8962원에서 1280원 오른다.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900만8340원에서 올해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를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을 더 부담한다. 연간으로는 105만840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

나 그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2025년도 귀속분 연금소득을 신규 반영해 지역 및 보수와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새로운 연금소득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mlee236@

“AI ‘내부 생명력’ 받아들여 체화해야”

» 1면 ‘깊은 성찰서 비롯…’서 계속

이어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에 미래가 달려있다”며 “현대차그룹이 다가올 미래에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은, AI를 외부에서 빌려온 기술이 아닌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도 신차·파워트레인 라인업을 확대하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생산 전략과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하이브리드·전기차(EV)·내연기관 등 다양한 파워트레

인 라인업을 선보이며 성장을 이어간다. 기아는 올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신규 판매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내 중장기 투자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정 회장은 “단순히 외형을 키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래를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하느냐이며,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내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고 발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SK, 합산 영업익 200조 전망… ‘오천피’ 기대감 고조

코스피 4400 돌파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 2일 삼성전자가 ‘12만전자’ 수준까지 오르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박씨는 “시장에서는 16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워낙 빠르게 올라서 무섭기도 하고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연말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조정이 있을 것 같아 우선 주식을 팔았다”고 했다.

동학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거침없이 치솟자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발을 빼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며 빛투에 나서는 개미들이 시장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영업 이익 합계가 2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부를 늘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6만전자·80만닉스’ 짚주

5일 삼성전자 주가는 7.47% 상승한 13만81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81% 상승한 69만6000원을 기록했다. 반도체는 이날 코스피를 4400선에 올려 놓았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상향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자체 개발 이슈도 있다. 구글의 텐서 처리장치(TPU)가 대표적이다. 오픈AI는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 아마존웹 서비스(AWS)는 ‘트레이니엄3’를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AI 칩 ‘마이아200’을 출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5공장(P5) 공사에 착수한다. 2028년까지 완공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60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4개의 패(공장)을 짓기 위해 최소 128조원을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HBM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섹터로 확산된다면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급 환경에 부담이던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올해 기업 실적은 기존대로 주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AI 성장 기대와 함께 실적 개선 및 수출 호조가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을 추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네이버, 검색 점유율 60% 회복… AI 전략 주효

플랫폼 체류 중심 검색기능 재설계 AI 브리핑 도입 등 정보 신뢰성 제고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지배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네이버가 지난 해 60%를 넘는 검색 점유율을 기록하며 구글과의 격차를 다시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장조사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평균 62.8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8.14% 대비 4.7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61.20%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전년 대비 3.45%포인트 감소한 29.55%를 기록했다. 두 플랫폼 간 점유율 격차는 1년 사이 다시 확대되며,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マイクロソフト 검색 엔진 빙은 3.12%로 3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2.94%로 뒤를 이었다. 줌과 애후 등 기타 검색 서비스는 점유율 1%를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번 점유율 반등을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검색 전략 전환의 결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을 정보 탐색 중심에서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며 이용자 체류 구조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AI를 검색 결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이용자



가 여러 사이트를 오가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왔다. 특히 쇼핑, 지도, 로컬 정보, 예약 서비스 등을 검색 결과 안에서 직접 연결하면서 검색 이후 행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이 같은 변화는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뉴스, 카페, 블로그, 쇼핑 등 일상 소비 정보 탐색에서 네이버를 선호하는 국내 이용자 특성이 검색 체류 시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외부 링크 중심의 검색 구조를 유지하는 구글과의 차별화 지점으로도 꼽힌다.

네이버 검색 반등의 핵심으로는 AI 브리핑이 지목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AI 브리핑을 본격 도입하며 검색 신뢰도 제고에 힘을 실었다. 특히 10월 선보인 건강 분야 특화 AI 브리핑은 상급종합병

원, 공공기관,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 내용을 요약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AI 브리핑 최다 생성 검색어 주제 중 하나가 건강 정보였다.

공공 분야 특화 AI 브리핑 역시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이어 11월에는 증권정보 특화 검색을 출시해 기업 동향과 실적 발표, 전문 콘텐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I 전략에서도 네이버는 한국어 특화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글로벌 범용 모델보다 신조어, 지역 기반 질문, 맥락형 검색에 강점을 보이며 국내 이용자 체감 정확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여기에 검색 광고와 콘텐츠 노출 간 경계를 조정해 이용자 피로도를 관리한 점도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검색을 단순한 유입 창구가 아닌 플랫폼 체류의 중심으로 재설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색 이후 정보 확인, 소비,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가 이용자 이탈을 줄였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AI 브리핑을 확장하고 있다”며 “차별화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네이버만의 AI 검색 경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美 금리 불확실성 확대… 韓 인하 속도 제약

15일 금통위 회의 이목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미국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새해 초 다시 부각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한국은행이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맞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한 상황에서 미 금리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한은의 완화(인하) 속도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학회 행사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3.50~3.75%)가 “약간 제약적(slightly restrictive)”이라고 평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히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후반에 한해 “소폭의 추가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추가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take a while)”며 성장과 고용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슨 총재는 물가가 연말로 갈수록 2%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반기에는 관세 관련 요인이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해 데이터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 논의의 상단을 규정하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달러 1400원대 후반을 두고 “최근 환율 수준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미 금

리 격차 확대에 대해 국내 달러 수급과 기대심리 요인이 약세 압력을 키웠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는 구조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준의 인하가 늦어질수록 국내 경제가 민감해지는 이유는 금리차와 환율 기대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미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오래 남아 달러 선호와 해지 수요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 원화 약세 기대가 커진 국면에서 한은이 선제 인하에 나설 경우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경계가 커질 수 있다. 한은도 최근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서 향후 인하 여부와 시점은 성장·물가뿐 아니라 외환시장 변동성, 금융안정을 함께 점검해 판단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다. 기준금리 자체보다도, 한은이 환율 변동성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향후 완화 속도에 대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내놓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고용보고서(1월 9일)와 CPI(1월 13일), 한은 금통위(1월 15일)가 연세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변동성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 한은의 완화 속도는 더 보수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한은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130인치 초대형에 AI 결합… 삼성, ‘마이크로 RGB TV’ 선봬

초프리미엄 TV 기술력 공개

RGB LED 독립 제어로 화질 강화
마이크로 RGB로 명암 표현 확대
AI 엔진 탑재해 장면별 자동 조정
BT2020 100%, VDE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AI 전략을 공식화하며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에 앞서 ‘더 퍼스트 룩’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 AI 전략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 연사로 나선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은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군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삼성전자 130형 마이크로 RGB TV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고객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객들의 일상 속 AI 동반자가 되어 ‘AI 경험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개방형 협업을 통한 고객 선택권 확대 ▲온디바이스·클라우드

AI 간 효과적 결합을 통해 AI 서비스 최적화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AI 경험 제공하는 스마트싱스·원 UI·나우 브리프 등 AI 인터페이스 강화 ▲삼성 녹스 기반 강력한 보안과 AI 신뢰도 강화를 소개했다.

특히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프레스 콘퍼런스 무대에서 처음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이크로 RGB TV는 스크린에 마이크로 크기의 RGB(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빨강,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GB LED 칩 크기를 100μm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화면 색상과 밝기를 보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제어 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 RGB 기술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최신 AI 엔진인 ‘마이크로 RGB AI 엔진 프로(Micro RGB AI Engine Pro)’가 탑재됐다.

최신 AI 엔진 프로는 화질과 음질을 모두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구현해준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와 ‘마이크로 RGB HDR 프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과 명암을 정교하게 조정해 어떤 밝기의 장면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뛰어난 디테일을 구현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는 삼성전자의 화질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술로, 이번에 공개한 130형 모델은 그 비전을 한 단계 더 확장한 제품”이라며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력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홈로봇·차량솔루션 등 AI 확장”… ‘공감 지능’으로 일상 혁신

‘당신에게 맞춘 혁신’ 주제 전시

가사부담 줄인 ‘제로 레이버 홈’
車 안전·편의 강화 AI 전장 기술
TV·가전까지 개인화 경험 확대

LG전자가 CES 2026에서 AI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한 미래 생활 비전을 제시한다. TV와 가전을 물론 로봇, 차량용 솔루션까지 아우르며 기술 경쟁력을 내세운 가운데 LG디스플레이도 차세대 OLED 패널과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LG전자는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LG전자 올레드 에보 W6. /LG전자
nce)의 진화를 선보인다. 전시관에서는 제로 레이버 홈을 구현하는 AI 가전과 홈로봇 ‘LG 클로이드’,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T

V 라인업,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등을 한자리에 소개한다.

TV 부문에서는 초슬림·무선 기술을 앞세운 2026년형 올레드 에보 라인업이 핵심이다. LG전자는 9mm 대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 W6’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계 최초로 4K·165Hz 영상과 오디오를 손실·지연 없이 전송하는 무선 기술을 적용해 케이블 연결을 없앴으며,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제로 커넥트 박스’ 역시 소형화했다.

W6·G6·C6 등 올레드 에보 라인업에는 듀얼 AI 엔진 기반 3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와 ‘하이퍼 레디언트 컬러’ 기

술이 적용됐다. 두 가지 AI 업스케일링을 처리하는 ‘듀얼 수퍼 업스케일링’을 통해 자연스러운 화질을 구현하며, 화면 밝기는 기존 올레드 대비 최대 3.9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초저반사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게이밍 기능도 탑재해 활용 범위를 넓혔다.

가전과 로봇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생활 밀착형 경험을 강조했다. LG 클로이드는 상황 인식과 학습, 정교한 제어 능력을 갖춘 흠로봇으로 제로 레이버 홈 구현의 중심에 섰다. AI 냉장고와 워시 타워 등 가전 제품 역시 사용 패턴을 학습해 보관·세탁·건조 과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차량용 솔루션도 전시의 한 죽을 이뤘다. LG전자는 투명 OLED와 인캐abin 센싱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디스플레이·비전 솔루션을 선보이며, AI가 운전자 상태와 주행 환경을 분석해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모습을 시연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재·부품 경쟁력을 부각했다. 대형 OLED 부스에서는 독자 기술인 ‘프라이머리 RGB 텐덤’을 발전시킨 ‘프라이머리 RGB 텐덤 2.0’을 적용한 신규 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최대 휴도 4500니트와 0.3% 수준의 초저반사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차현정 기자

LGD, 세계 최초·최고 OLED 기술 전시

RGB 텐덤 2.0 적용한 OLED 선봬
최대 4500니트·0.3% 반사율 구현
SDV시대 겨냥한 차량용 OLED 제시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풀라인업과 전화하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설루션을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래드 호텔과 컨벤션 센터(LVCC) 웨스트홀에서 대형 OLED 부스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스를 각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전시 주제는 ‘AI(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모두를 위한 OLED’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OLED 대중화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차별화된 시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콘래드 호텔에 마련한 대형 OLED 전시 부스에서는 OLED 화질 혁신의 정점



을 보여줄 새로운 OLED TV 패널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빛의 삼원색(적·녹·청)을 각각 독립된 층으로 쌓아 빛을 내는 LG디스플레이 독자 기술 ‘프라이머리 RGB 텐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프라이머리 RGB 텐덤 2.0’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 OLED TV 패널은 최대 휴도 4500니트 구현에 성공했다. 또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 분산시켜주는 기술까지 탑재해 현존 디스플레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반사율(0.3%)도 달성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모베드’로 글로벌 기술력 입증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
혁신성·디자인 등 종합 평가 최고점

현대자동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로보틱스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는 매년 출품작 중 혁신성, 디자인, 기술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그 중 최고혁신상은 각 부문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작에 부여된다.

5일 CTA에 따르면 현대차는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ile Eccentric Droid, MobED)로 로보틱스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CES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수상한 혁신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최고

혁신상으로 받은 것은 로보틱스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양산형 모베드는 지난 2022년 CES에서 콘셉트 모델을 공개한 이후 약 3년간의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했다.

모베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현대차는 올 1분기부터 모베드를 양산해 고객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가전·모빌리티 경계 허문 ‘AI 경쟁’

» 1면 ‘삼성·LG·현대 등…’ 서 계속

이같은 전략은 TV 사업에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CES 개막에 앞서 ‘더 퍼스트 룩’ 행사에서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했다. RGB LED를 미세 단위로 제어하는 마이크로 RGB 기술과 전용 AI 엔진을 결합해 화질·명암·색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

서 단독 전시관을 통해 제품 전시와 발표 행사 등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 공간만 업계 최대 규모인 4628m²(약 1400평)에 달한다.

LG전자는 ‘공감 지능’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AI가 사용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TV 분야에서는 초슬림 디자인과 무선 기술을 앞세운 유기발광다이

오드(OLED) 에보 W6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다. LG전자는 LVC C 센터 런던에서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2044m² 규모 전시관을 조성했다.

현대차그룹은 5일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인류의 진보와 함께하다: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주제로 AI 로보틱스 전략을 공개한다. 특히 주요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해 그룹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비전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K-성장! K-금융! 프로젝트」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 밝아집니다.

신한은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물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 제조업과 뿌리산업 전반에 기술금융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으로 K-성장, K-금융을 선도하겠습니다.



신한「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신한은 올해 하반기 기술금융 지원을 1조 8,789억 원 늘려 누적 42조 8,186억 원(10월말 기준)을 달성하며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국 新시장 개척 필요… AI·뷰티·문화 등 돌파구 될 것”

韓-中 비즈니스 포럼

李 대통령 “韓中, 떼려야 뗄 수 없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호적 관계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 가길 바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을 만나 “한중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의 국빈관인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중은 같은 파도를 넘고 한편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공적 관계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이 더 이상 과거처럼 정해진 흐름 그대로 쉽게 따라갈 상황은 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니다.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교역액은 30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과 생활용

품, 뷰티(미용), 식품 등 소비재,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간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무너지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

계니,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나갈 항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중국 측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한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양국의 정상회담이 반드시 공동 인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신뢰하는 발전 관계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 대표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에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

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등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특히 패션그룹 협지의 최병호 회장, SM엔터테인먼트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 등 K-콘텐츠 관련 주요 기업 대표들도 동행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중국에서는 대외무역·투자촉진을 담당하는 중정부기관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석유화공그룹, 에너지건설그룹, 금융그룹, TCL과 기그룹, 베터리 CATL, 문화 콘텐츠 텐센트, 통신 장비 ZTE 등 주요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경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두고 내부 갈등

반도체 산단에 원활한 전력공급 필요
韓-中 지역구 의원, 이전론 주장
김동연 경기지사·용인시 의원 반발



체제조시설)의 착공을 시작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용인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올해부

지를 착공하고 2028년에 1기 펩을 착공하고 2030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초기 전력수요(3GW)는 산단 내 발전으로 충당하고, 후기수요(7GW 이상)는 원거리 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문제도 하수 재이용수·필당댐 잔여 용수·화천댐 발전 용수를 이용한다.

이번 논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두고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이 쉽지 않다. 전기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토를 다각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산단 이전론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정부 계획에서도 전력 후기 수요는 먼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온다는 계획이어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용인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우려한 바 있다.

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3선·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며 반도체 산단 전북 새만금 이전론에 균불을 뗐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 계획상으로는 전력 수요가 16기가 기가와트(GW)라고 하는데 원전 16기 이상 분이라고 한다”면서 “국내 최대 전력 수요처가 될 터인데, 수도권에는 발전 여력이 많지 않아서 결국 전북을 비롯해서 충남, 충북, 경북 이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

다.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이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끊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경기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용인시를 국회의원으로 둔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경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불필요하고 비경제적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반대론을 두고 “경기도의 이해만을 앞세운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김동연 지사 등을 직격해 집권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두고 내부 갈등

이수진 “의혹 보고에도 조치 없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현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의혹과 비위 행위 관련 탄원을 보고받았음에도 의혹을 덮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다가온 과거 공천 관련 악재는 두 가지다. 첫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시절,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을 보고했고, 김 전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했지만 김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은 공천 현금 수수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김 시의원

이 공천을 받은 데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2024년 총선 서울 동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3년 말 당시 동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 검증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쟁자인 이수진 전 의원을 첫오프하고 단수공천에 나설 것을 우려해 이 전 의원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탄원했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들에게 1000만~2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까지 혼연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탄원서를 받아 이재명 당 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의혹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보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김 보좌관의 녹취까지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지도부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았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비이재명계의 공천 탈락이 이어진 지난 총선에 대한 공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의원의 폭로를 두고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구의원 두 분은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내 경쟁자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방선거 공천현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당원계시판 논란 징계 속도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만간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계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윤리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한 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면, 위원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장 등을 호선으로 정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윤리위 구성 자체를 엄정히 구성해야 한다는 당대표 의지가 있었다”라고 했다.

윤리위원장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 오늘 최고위원에서도 (호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장 임명까지 의결하면 윤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날 윤리위원회 선임으로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계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기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당의 명당원계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지속해서 올렸다는 취지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두고 내부 갈등

이수진 “의혹 보고에도 조치 없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현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의혹과 비위 행위 관련 탄원을 보고받았음에도 의혹을 덮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다가온 과거 공천 관련 악재는 두 가지다. 첫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시절,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을 보고했고, 김 전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했지만 김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은 공천 현금 수수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김 시의원

이 공천을 받은 데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2024년 총선 서울 동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3년 말 당시 동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 검증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쟁자인 이수진 전 의원을 첫오프하고 단수공천에 나설 것을 우려해 이 전 의원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탄원했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들에게 1000만~2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까지 혼연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탄원서를 받아 이재명 당 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의혹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보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김 보좌관의 녹취까지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지도부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았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비이재명계의 공천 탈락이 이어진 지난 총선에 대한 공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의원의 폭로를 두고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구의원 두 분은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내 경쟁자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방선거 공천현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두고 내부 갈등

이수진 “의혹 보고에도 조치 없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현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의혹과 비위 행위 관련 탄원을 보고받았음에도 의혹을 덮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다가온 과거 공천 관련 악재는 두 가지다. 첫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시절,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을 보고했고, 김 전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했지만 김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은 공천 현금 수수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김 시의원

이 공천을 받은 데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2024년 총선 서울 동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3년 말 당시 동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 검증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쟁자인 이수진 전 의원을 첫오프하고 단수공천에 나설 것을 우려해 이 전 의원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탄원했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들에게 1000만~2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까지 혼연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탄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홍대까지 20분, 광역철도선 착공… 내년 입주는 ‘미지수’”

Q 르포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향후 1만9000세대 입주 예정
홍대 직행 철도선 2031년 개통
“원종역 군부대 이전 등 사업지연
빠르면 2029~2030년 입주 예상”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지하철 3호선과 서해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원종역에 도착했다. 원종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15분가량 가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다. 향후 1만9000세대가 들어선다.

부천 대장지구는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현장을 바로 앞에서 보기는 어려웠다. 공사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에 올라가니 15층 높이에서는 대장지구 A5, A6블록 쪽에 크레인 10개와 낮게 쌓아 올린 건축물 일부가 눈에 들어온다. 반면 뒤편의 A7·A8블록(사전청약)은 멀리서 일부 몇 명만 보일 뿐 뚜렷한 공사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도로에는 주변 개발 공사로 래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이 자주 오갔지만, 정작 대장지구 내부에서는 공사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부천 오정동의 D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평소 대장지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정부 기관 발표를 확인할 뿐이어서 공사에 대해 따로 아는



부천대장지구 공사현장.

/성채리 인턴기자

바는 없다”며 “집을 보러 갈 때 크레인 같은 게 움직이면 여기는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분양은 정보가 돌기도 하지만, 대장지구는 대부분 공공 분양이어서 더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 달 전 공개한 부천대장 A5·A6·A7·A8 네 블록의 공정률은 8~11%다. 본청약과 사전청약이 진행된 곳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를 포함한 진행률이라고 하지만 현재 속도로 2027년과 2028년 예정된 입주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행정 절차와 인허가 지연, 군부대 이전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 여기에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올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이어졌다.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경기 근교에는 시멘트 공장 같은 공급원이 거의 없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 자재가 빨리 소진돼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택 1만9000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서울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김포 공항과 인접하고 서울 강서·마곡과 맞닿아 있는 위치다. 2026~2027년 본격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금은 배차간격이 10분 이상인 서해선을 타거나 서울 중심지에서 지하철과 광역버스를 갈아타야 대장지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홍대

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광역철도선이 착공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철도는 2031년 개통 예정이다. 또 SK그룹과 대한항공이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확정지으면서 직주근접성을 갖춘 ‘제2 마곡’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신축 경쟁력에 더해 분양 가상한제로 1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A7, A8블록이 지난해 5월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각각 346가구 모집에 4만3000여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올해 상반기 다른 3기 신도시들은 분양 일정이 확정되면서 하반기 물량까지 일부 진행됐지만, 부천 대장신도시는 분양과 공사 모두 상대적으로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 시점에 대한 현장의 전망도 보수적이다. 인근 ‘H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원종역 인근 군부대 이전 사업도 2024년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져 아직도 공사 중”이라며 “대장지구 역시 당초 언급된 2027~2028년 입주는 쉽지 않아 보이고, 빠르면 2029~2030년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정별로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며 “공사비 집행률은 골조 공사이전에 낮고, 골조 공사 단계부터 본격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암 뇌심진단 등 종합보장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한화생명은 5일 암 뇌심진단부터 최신치료까지 주요 보장을 하나의 보험에 담은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새해 첫 상품으로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보장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기존의 건강보험 라인업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제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설계만으로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건강 상태와 보장 선호에 맞춘 설계도 가능하다.

고지유형을 업계 최고 수준인 13단계로 세분화해 유병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유형은 가입 이후에도 조정 가능하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한 고지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여성의 삶 전반 촘촘보장 건강보험4.0 무배당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새해를 맞아 여성보험 명가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표 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 무배당’을 새롭게 선보이며 여성보험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 상품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위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부담 대응 ▲난임부터 임신·출산·산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출산지원 관련 다양 한 보장 ▲여성 고유질환(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을 중심으로 한 통합 치료비 보장으로 요약된다.



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장한도 업계최대로 KB 금쪽같은 펫보험

KB손해보험은 5일 보장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고객 가입 편의성을 높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입·통원 의료비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입원과 통원 각각 연간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가의 MRI·CT 활영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대수술과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3분기 카드사 총 연체액 줄었지만 장기적 부실 우려

금감원, 카드사 8곳 연체액 2.4조 6개월 이상 장기연체액 4연속 상승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시내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뉴스

월 말에는 2조4083억원까지 줄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다. 6개월 이상 카드사들의 장기 연체액은 지난 2024년 12월 말 2560억원에서 지난해 3월 3395억원, 6월 3847억원, 9월 5383억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연체액 증가분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3월에서 6월 500억원 가량 증가했던 장기 연체액 증가분이 9월에는 4배 이상 올라 2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액과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액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카드사 연체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9월 말 기준 1983억원의 장기 연체액을 나타냈다. 신한카드 984억원, 하나카드 776억원, 비씨카드 416억원, 우리카드 409억원, KB국민카드 301억원, 현대카드 275억원, 삼성카드 236억원 수준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주문에 따라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확대하고 대손상각비를 늘리면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해 왔다.

실제 카드사들의 대손상각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카드사들의 누적 대손상각비는 3월 말 504억원에서 6월 말 727억원, 9월 말 909억원까지 확대됐다.

대손상각비는 카드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손실로 인식해 처리하는 비용으로 실질적인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들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 기간이 길수록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마수걸이 물량 늘었지만 일반분양 감소

이달 물량 전년비 30% 늘었지만 일반 4816세대… 9% 가량 줄어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총 분양 예정 물량은 1만1635세대다.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9%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규모는 확대됐지만 일반분양 비중은 줄어드는 구조다.

직방 관계자는 “1월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만559세대로 ▲서울 4150세대 ▲경기 3841세대

▲인천 2568세대 등의 순이다. 지방은 경북·경남 2개 지역에서 2개 단지, 총 1076세대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더샵신풍역(2030세대), 아크로드서초(1161세대), 드파인연희(959세대) 등이 분양에 나선다. ‘더샵신풍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로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332세대로 예정돼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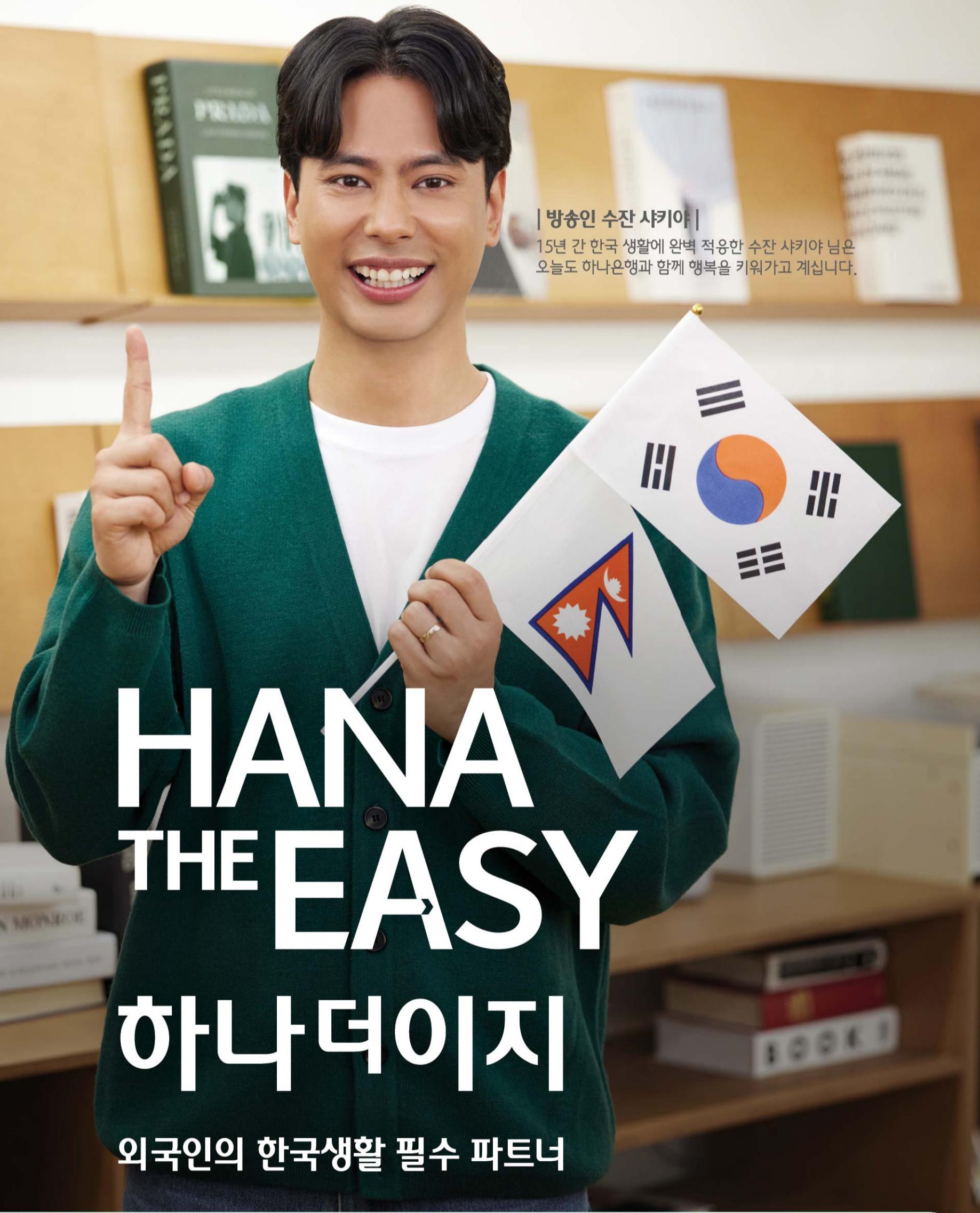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외국인은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한국은 주말이라... 해외 송금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은행 상담 때마다 한국어가 안 통해서 답답해”

| 방송인 수잔 샤키야 |

15년 간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수잔 샤키야 님은
오늘도 하나은행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HANA THE EASY 하나더이지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

외국인 손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외국인 전용 맞춤 금융 / 간편 금융 / 다국어 금융 상담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LG 3社 신년사

“올해 선택과 집중전략 속도” AX 중심으로 사업전면 재편

임직원 참여형 ‘열린 시무식’ 개최
LG화학, AX 중심 사업 체질 전환
LG엔솔, ESS 확대 등 실행력 강화
LG이노텍, 고수익 사업 확대 속도

LG 주요 계열사들이 대표 신년사를 통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핵심 수단화 해 포트폴리오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일제히 내놨다.

김동준 LG화학 사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근본적인 혁신과 체질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 불러온 반도체·로봇·자율주행 시장의 변화와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구조적 불균형,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기업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LG화학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화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는 단기 시황에 흔들리기보다 10년, 20년 뒤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미래를 위한 초기 단계 투자는 지속하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은 과감히 조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핵심 경쟁우위 기술과 핵심 신사업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역시 주요 과



김동준
LG화학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선택과 집중이 혁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실용적 방법”이라며 “혁신의 도구로서 인공지능 전환(AX)과 핵심 결과 지표(OKR)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전환(AX)을 올해 경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EV) 분야의 릴레이 수주, 수익 구조 안정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ESS 생산 능력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SI·SW 차별화 역량 강화를 통해 설루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기 공급을 위해 북미, 유럽, 중국 등에서의 ESS 전환을 가속하고, 공급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도 함께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X 기반 실행에도 속도를 낸다. 김 사장은 “AX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며 “제품 개발·소재 개발·제조 운영 등 3대 핵심 영역에 AI 적용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최소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올해 핵심 경영방침으로 ‘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문 사장은 전사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경쟁력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사장은 “개별 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의 육성을 가속화하여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문 사장은 일하는 방식에 AX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문 사장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AX를 적극 활용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이와 동시에 각자의 역량을 고도화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워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AX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 가치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로보틱스

우창표 신임 대표 내정



한화로보틱스는 새 대표이사로 우창표 한화비전 미래혁신TF장(사진)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신임 대표는 미국 스텝퍼드대에서 경영공학 석사를 취득한 뒤 맥킨지앤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팅 텐트로 활동했다. 이후 맥큐스인코포레이티드와 코너스톤파트너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24년 한화그룹에 합류한 뒤에는 한화비전 미래혁신TF장을 맡아 기계부문 경영 효율화와 신사업 발굴을 주도해 왔다. 글로벌 컨설팅 현장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우 대표의 선임으로 한화로보틱스의 제조 공정 혁신과 생산 효율 제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GM, 가솔린·디젤 투트랙 ‘무쏘’ 선봬

전면 디자인·주행 성능 개선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정통 아웃도어 스타일의 대한민국 대표 픽업 ‘무쏘’를 5일 출시하고 본계약에 돌입했다. 새로워진 ‘무쏘’는 ‘The Original’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보이는 ‘무쏘 스포츠&칸’의 후속 모델로, 전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데크, 서스펜션 등 주요 사양을 중심으로 멀티 라인업을 갖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픽업을 제공한다.

KGM은 전기 픽업 ‘무쏘 EV’에 이어 정통 픽업 ‘무쏘’를 선보이며 전동화 모델부터 가솔린, 디젤까지 픽업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무쏘’는 역동적인 프론트 디자인과 험로 주행을 고려한 차체 설계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칠어 질주하는 다이나믹한 정통 픽업 이미지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도심형 픽업 감성을 강조한 웅장하고 대담한 스타일의 ‘그랜드 스타



일’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여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해당 패키지는 M7 트림부터 적용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0 터보 엔진과 디젤 2.2 LET 엔진으로 구성해 주행 환경과 활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와 레저 등 다양한 활용성을 고려해 ‘스탠다드’와 ‘롱’ 두 가지 데크 타입을 운영해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

/양성운 기자 ysw@

정기선 “소통 문화, 기업 경쟁력 핵심 요소” (HD현대 회장)

임직원 300명과 ‘오픈닝 2026’ 진행 위험 신호 말하는 건강한 조직 강조



등 미래 투자를 지속하면서 조선·건설기계·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점”을 꼽았다.

개선이 필요한 관행과 조직문화에 대한 질문에는 “조직에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강한 업무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통 문화는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솔직한 의견이 회사의 방향을 더 명확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며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이후 직원식당을 찾아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배전캠퍼스 건설 현장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HD건설기계 사업장 방문,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데이’ 참석 등도 같은 맥락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2025년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차세대 CAD, 소형 모듈원전(SMR), 건설기계 신모델 출시

K-배터리, 전기차 부진에 실적 ‘안갯속’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적자 우려 지속 ESS 돌파구 모색에도 단기성과 제한적



전기차 수요 회복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실적 불확실성도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실적 보완에 나섰지만, 이 역시 가시적 성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G 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를 동시에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 업체 애프앤가이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5조7736억 원,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이익은 231억 원 순실로 적자 전환을 전망했다. 삼성SDI는 매출이 6.3% 줄어든 3조5147억 원, 영업손실은 27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SK온 역시 2339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올해 연간 실적 부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SDI의 올해 영업손실은 794억 원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온 역시 영업적자가 61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1년 제시했던 차세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하며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투자와 생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시장에서는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2027년 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ESS 역시 기대만큼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 간에 실적을 보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해 11월 집계한 2026년 ESS 신규 발전 용량은 23.7기가와트(GW)”라며 “진행 단계로 볼 때 실제 규모는 20.4GW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ESS 배터리 셀 수요 증가율 역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62개 中企 컨소시엄 구성… 수출 신기록 이어간다

지난해 中企 수출 사상최대 관측
컨소시엄 등 정책지원 적극 추진
“기준 성과 확대, 신규시장 개척”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관측되는 'K-중기'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연초부터 해외 공동 전시회·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62개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품목·시장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꾸리는 '수출컨소시엄' 지원을 위해 올해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9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을 위해 신청한 199개 중기 수출 컨소시엄 가운데 현지시장 개척 활동의 전략성과 경쟁력 등을 종점 평가해 62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했다.

품목별로는 뷰티와 패션 등 소비재 분야가 46.8%, 철강·기계금속 및 전기 등 산업재 분야가 38.7%다. 인도, 아랍 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 공략을 위한 두바이의료기기 컨소시엄 등도 11개(17.7%)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컨소시엄별로 현지 시장조

사등 국내에서의 사전 준비(국내)→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현지 파견'(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국내)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주력시장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신증시장은 국가별 타겟팅 전략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K-중기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6867억원은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198억원) 뿐만 아니라 ▲신시장 진출지원 자금 3164억원 ▲수출 바우처 1502억원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00억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356억원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103억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특히 중기부는 예년보다 지원시기를 앞당겨

수출·진출 희망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을 아우르는 총 수출은 지난해 70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24년의 6836억 달러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3분기(9월) 까지 누적 수출액이 871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찍은 바 있다. 최종 집계가 덜 됐지만 4분기까지 포함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도 지난해 기록이 역대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수출 흐지상품으로 품목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미국, 폴란드 등 개별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K-화장품'은 전 세계 203개국으로 수출되고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8922개사를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 AX 로드맵 마련

박주선 AI최고책임자 선임

기술보증기금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기보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AI최고책임자(CAIO)는 박주선 전무이사가 맡았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기조에 발맞춰 기존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전환 전략을 한층 더 고도화한 것으로, 2026년부터는 내부 업무 효율화에 국한되지 않고 경영 전반과 고객·국민 대상 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보는 이번 전략을 통해 조직 전반에 AI 활용 역량을 내재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공공기관의 AX 혁신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 ▲보안 ▲리스크 ▲성과관리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사적 AX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AI 인프라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내·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보의 벤류체인 전반을 분석해 AX 실행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전략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였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로템, 2세대 'EMU-320' 출고… K-고속철 경쟁력 입증

〈고속철도차량〉

납기일보다 4개월 앞선 12월 최종 인도 1세대 대비 승차감·안전성·편의성 개선

현대로템은 32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인 2세대 EMU(Electric Multiple Units)-320의 초도 편성을 조기 출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차량은 지난 2023년 3~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수주한 32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의 초도 편성으로,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각각 출고됐다. 차량은 약 1년 간의 시운전을 거친 뒤 납기보다 4개월 앞선 오는 12월 발주처에 최종 인도될 예정이다.

2세대 EMU-320은 지난 2024년 5월 국내 첫 영업 운행을 시작한 1세대 EMU-320(KTX-청룡)의 성능 개선형이다. 1세대 대비 소음은 줄이고 승차감·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세대 EMU-320에는 2세대 EMU-



2세대 EMU-320.

260(KTX-이음)에 적용됐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이 처음 탑재됐다. KTCS-2는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거리를 자동 제어하는 철도 신호시스템으로 승객 안전 확보와 함께 열차 간격 단축을 통한 수송력 확대, 국산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기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상태기반유지보수(CBM) 시스템도 적용됐다. CBM은 주요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부품 잔여 수명과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기에 정비·교체가 이뤄지도록 돋는 체계다.

또 주변압기와 보조전원장치 용량을 확대해 공조 성능을 개선하고 제동거리 단축을 통해 안전성도 높였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승객 편의 설비도 개선됐다. 외부 행선지 표시기는 대형 풀컬러 LED 모니터로 교체됐고 객실 내부와 승강문 주변에도 행선지 안내 모니터

가 추가됐다. 좌석별 무선충전장치는 거치식으로 변경돼 충전 중에도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 연구개발(R&D)과 적기 인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현대로템과 국내 협력업체, 유관기관이 참여한 370km/h급(설계 최고속도 407km/h) 차세대 고속차량 연구 성과도 공개됐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고속철도 차량 전 차종의 초도 편성도 계획보다 앞당겨 출고·인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에는 2세대 EMU-260을 예정보다 140일 앞당겨 인도했고,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EMU-250도 약 3개월 앞서 출고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산 고속차량을 만들기 위해 부품 협력사들과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신뢰받는 K-고속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삼양그룹 버든트, 루브리졸 엘맨도르프 사업장 인수

화학계열사 특수 소재 포트폴리오 확장

삼양그룹 화학계열사 버든트 스페셜 티솔루션즈(Verdant Specialty Solutions)는 글로벌 특수 화학기업 '루브리졸(Lubrizol)'이 보유한 제조 및 연구개발(R&D) 사업장 '루브리졸 엘맨도르프(Lubrizol Elmendorf)'를 인수했다고 5일 밝혔다.

루브리졸은 엔진오일, 연료, 퍼스널 케어,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 한 고기능성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특수 화학기업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루브리졸 엘맨도르프는 황화수소(H₂S) 제거제, 스케일(Scal-



삼양그룹 버든트 공장 외경.

e) 억제제, 부식 방지제 등 오일 및 가스 생산공정에 필요한 특수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연구하는 사업장이다. 매출은 2024년 기준 약 47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는 기업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산, 기술, 인력을 선별

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인수 대상에는 루브리졸 엘맨도르프 제조 및 R&D 시설과 인력을 비롯해 제품 포트폴리오, 파일럿 규모의 설비 등이 포함됐다. 인수일자는 2025년 12월 31일이다.

삼양그룹은 루브리졸 엘맨도르프가 버든트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군과 겹치지 않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 이번 인수로 루브리졸 엘맨도르프의 자산은 버든트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통합돼 북미 지역 제조 및 혁신 거점으로 운영된다.

버든트는 이번 사업 인수로 기존 퍼스널케어용 양쪽성 계면활성제 및 산업용 비아온성 계면활성제 사업에 더해 에너지 분야의 특수화학소재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한편 R&D 인프라를 활용해 차세대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오일 및 가스용 특수화학제품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토드 넬마크 버든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는 버든트가 차별화된 기술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이정표"라며 "엘맨도르프 사업장은 버든트와 상호 보완적인 화학 관련 기술과 우수한 R&D 역량을 보유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유원

동반성장몰 中企 기획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동반성장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5일 한유원에 따르면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구성된 온라인 폐쇄형 복지몰이다. 149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총 237개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하고 있다.

내달 6일까지 진행하는 기획전에는 중소기업 52개사가 참여한다. ▲한우, 한돈 선물세트 ▲사과, 곶감 등 명절 과일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 '쿠팡 이탈' 속 개인정보 보호 고도화로 노 젓는다

쿠팡, 주간활성 이용자수 5.8%↓
대체 플랫폼은 뚜렷한 증가세 보여

네이버, 장보기·신선식품 분야 보완
개인정보 수집·활용 구조 재정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탈팡(쿠팡 이탈)' 흐름이 확산되면서 국내 유통·플랫폼 업계의 경쟁 구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빠른 배송과 초저가 전략으로 독주해 온 쿠팡의 이용 흐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이 대체 선택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771만6655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1월 24일부터 30일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다. 급격한 이탈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용자 흐름에 변화 신호가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경쟁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쿠팡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이 네이버로 이동하는 이미지.

다. 같은 기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381만8844명으로 10.4% 늘었고, 11번가도 369만1625명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탈팡' 움직임이 네이버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쿠팡 이탈 수요

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는 기존 검색 기반 커머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오프라인 유통사와의 제휴를 통해 장보기와 신선식품 영역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12월에는 롯데마트와 제휴해 롯데마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롯데마트 유료 멤버십 '제티패스' 혜택을 무료로 제공

하고,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횟수 제한 없는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CJ온스타일, 11번가 등 도 배송과 멤버십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네이버는 단순한 배송 속도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플랫폼 구조 자체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데이터 통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최근 소비자 인식 변화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커머스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검색 이력과 구매 데이터의 연동 범위를 세분화하고, 광고 추천 역시 이용자 동의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송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용자를 플랫폼 내부에 끌어온 쿠팡의 폐쇄형 커머스 모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네이버는 검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자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개방형 커머스 구조를 유지해 왔고, 최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이 다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커머스 영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신뢰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AI 추천과 개인화 고도화 과정에서도 데이터 외부 이전을 최소화하고, 내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 정보는 플랫폼 내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속도와 가격' 중심 경쟁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팡 흐름은 아직 소액·비정기 구매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플랫폼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에서 신뢰와 데이터 관리로 이동할 경우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이용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대체 플랫폼 탐색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커질수록 네이버의 개방형 커머스 전략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개인·기업 'AI 에이전트' 청사진 제시

'에이닷' 1000만 MAU 성과 발판
에이전트 워크 플로우 기술로
전화, 티맵 등 주요 플랫폼과 연결

SK텔레콤이 에이닷을 앞세워 개인과 기업이 각자의 AI 에이전트를 보유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00만 MAU를 달성한 에이닷의 성과를 발판으로, 전화 서비스를 넘어 일상과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대표 AI'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지훈 SK텔레콤 에이닷사업 담당은 5일 자사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에이닷의 성공을 별관 삼아 개인과 기업 모두가 각자의 에이전트를 보유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에이닷은 출시 이후 꾸준히 이용자를 모으며 1000만 MAU 고지에 올랐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노트 기능은 일주일 만에 가입자 30만 명을 끌어모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는 사용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알아서 처리하는 에이전트 워크 플로우 기술이 꼽힌다. 이 독자 기술은 전화와 티맵, B tv 등 SK텔레콤의 주요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며 에이닷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기반이 됐다.

통신 기술의 본질인 전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시도는 기술적 차별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자체 AI 모델인

A.X와 국산 AI 반도체인 리벨리온 NP U를 융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국산 풀스택 AI 역량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이닷은 단순한 통화를 넘어 일정 관리와 정보 검색 등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향후 AI 전략은 기술 내재화와 외부 협력이라는 두 갈래로 추진된다. 500B급 초대형 모델인 A.X K1을 에이닷에 본격 도입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오픈AI와 앤드로이드,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개방형 AI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스스로 점검하는 신규 AI모델 공개

'카나나-v-4b-하이브리드'
고도화된 4단계 학습절차 거쳐

카카오는 5일 일상 대화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AI 모델 '카나나(Kanana)-v-4b-하이브리드'의 성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은 지난해 7월 허깅페이스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카나나-1.5-v-3b'를 토대로 개발됐다. 단순히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처럼 정보를 종합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자기 점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이 가진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나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계산 실수나 조건

누락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다.

카카오는 카나나-v-4b-하이브리드 모델의 높은 성능을 위해 단계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학습 과정을 적용했다. ▲기초 학습 ▲장문 사고 사슬 ▲오프라인 강화 학습 ▲온라인 강화 학습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고도화된 학습 절차를 거쳤다.

한국어 논리 전개 능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기존 글로벌 모델의 경우, 한국어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 사고한 뒤 재번역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맥락과 논리가 결여되는 한계점을 보였으나 이 모델은 한국어 질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사고하도록 훈련됐다. 한국의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AI 학력 평가 벤치마크인 'KoNET'에서는 92.8점을 획득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네이버클라우드,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추진

부산시 AI 행정전환 체계적 도입

네이버클라우드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부산시 특화 AI 구축, 업무 협업툴 네이버웍스 도입 등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해 부산시는 행정업무 수 행방식의 전반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작년 4월부터 '부산형 AI 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부산시 전 부서의 AI 도입을 시작한다. 그 첫 단계로 부산시는 작년에 네이버클라우드의 경량화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 대시'를 기반으로 부

산시 특화 AI 모델 구축에 착수해 행정 규정과 사례, 지역 정보 등 약 16만 건에 달하는 행정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이후 모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질의응답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올해 초에는 전 부서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령·지침·업무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은 물론, 정책·보고서 초안 작성 등 총 22종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자료를 활용한 자체 AI 모델을 구축해 공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AI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메신저 기반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업무 협업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4월 '부산형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도구인 '네이버웍스'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 특화 AI 서비스 'AI 부기 주무관'을 네이버웍스에 챗봇 형태로 구현해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I 부기 주무관은 내부 행정 데이터와 온라인, 외부 기관 사이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통한 내부 문서 추천·요약은 물론 문서 초안 작성, 외부 리서치 등 개인 비서형 AI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김보민 인턴기자

'U+키즈폰 무너 에디션2' 공개

LG유플러스가 지난 2일 자체 캐릭터인 '무너'를 활용한 'U+키즈폰 무너 에디션2(무너폰 2)'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색상은 블루와 그레이 두 가지이며, 출고가는 36만9500원(VAT 포함)이다.

무너폰 2는 LG유플러스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선보이는 9번째 키즈 전용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17 LTE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LG유플러스의 대표 인기 캐릭터 '무너'가 바탕화면과 테마에 적용됐다.

이번 키즈폰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해 이미지와 문자를 AI가 감지하고 알림을 주는 'AI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이 기능은 자녀가 유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캡처·다운로드할 경우 AI가 즉시 경고 알림을 보내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안내한다.

또 비속어 등 유해한 키워드가 포함된 SMS 문자를 받은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le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le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플랫폼 규율체계 재정비”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간담회

감독기구 독립성·자율성 강조
금융지주 회장 연임관행 비판
공공기관 지정 논란엔 선 그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지배구조 개혁도, 플랫폼 규율도 작동할 수 없다”며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부터 대형 플랫폼의 금융영역 확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까지, 서로 다른 시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형식만 남은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원장은 “절차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거버넌스는 시장 신뢰를 잡아먹는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 “연임이 반복되면 차세대는 골동품”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세대 후보군이 6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

씩 기다리다 보면 결국 에이징(aging·고령화)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며 “이사회와 CEO 승계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 굳어지는 구조는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 과도하게 치우친 구조”라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주주 이익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가 CEO와 동일한 판단을 반복할 경우 의사결정

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CEO 임기 구조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와 관련해서는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 감독 독립성·플랫폼 규율 강조

이 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은 예산·조직·재정의 자주성이 제한된 구조인데, 여기에 공운위까지 얹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요구되는 가치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성이 악화되면 시장 규율은 형식에 그치고 실질 감독은 어려워진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대형 플랫폼 감독으로도 이어진다. 이 원장은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입점업체 대출 과정에서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고, 이자 산정 기준도 자의적으로 적용돼 폭리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며 “현장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쿠팡과 쿠팡페이의 원아이디·원클릭 구조와 관련해서는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배제하

지 않고 양측 간 정보 흐름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은 강한 규율을 받는 반면, 몸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업 논리에 머물러 규율이 이원화돼 있다”며 “플랫폼이 포식자적 지위에 따른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 국민이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특사 경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 개시까지 허송세월이 길어지면 증거 인멸 위험이 커진다”며 “대표성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팀의 구조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감독기구의 독립성, 플랫폼 규율 강화까지. 이 원장은 감독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돼야 시장 신뢰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

AI·우주 등 산업별 맞춤형 심사… 시총 기준 단계적 상향

핵심기술 기업 코스닥 상장 지원 1분기 중 ‘기술 자문역’ 제도 도입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세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올해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벤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AI 산업 벤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생산, 모델·앱 개발, 퍼지컬 AI(로봇·자율주행) 등으로 세분화된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

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나눠 심사한다.

또한, 우주 분야는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인 만큼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예정이다. 수행 실적, 기술 완성도,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더불어 상장 유지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상 지속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향후 시가총액 기준을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난해 225개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 공시

한국거래소 전년대비 10% 증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가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한 기업은 225개사로 전년(204개사) 대비 10% 늘었다고 밝혔다.

월별로 보면 전체 225개 중 72%에 해당하는 163개사가 6월에 보고서를 제출

했다.

기업별로 보면 대규모 법인일수록 공시 비율이 높았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67%가 보고서를 공시한 반면 2조원 미만 기업 중 9% 만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아울러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중 애선 86%가 공시했으나, 시가총액 2조 이상~10조원 미만 기업은 65%, 2조원 미만 기업은 17%만 공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13개사), 금융·보

험업(48개사) 등 순으로 공시기업이 많았다.

공시 내용을 보면 공시기업의 95%가 기후변화의 위험·기회요인을 식별해 공시했다. 위험·기회 관련 양적 재무 영향(17%) 및 시나리오 분석(38%)을 수행한 기업 수는 전년과 유사하나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아울러 99%에 해당하는 기업이 ‘Scope1·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했으나, 연결기준으로 공시한 기업은 1%에 불과

해 여전히 종속기업을 포함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cope1은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을, Scope2는 기업이 구매 또는 취득해 사용한 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뜻한다.

물류·사용·폐기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Scope2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간접 배출량을 뜻하는 ‘Scope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68%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이나 추정값의 사용범위를 기재한 기업은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신영증권

‘병오년’ 슬로건 ‘종심’

신영증권이 창립 70주년인 2026년 병오년의 슬로건으로 ‘종심(從心)’을 선정하고, 새해맞이 신년 행사를 개최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새해 첫 출근길 경영진과 임직원이 약수를 나누는 등 신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 ‘종심(從心)’은 논어 위정편의 한구절로, 70세에 이르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영증권이 제시한 ‘종심(從心)’은 70년간 쌓아온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하은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햄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주)햇터
(주)햇터방송_브레인TV
(주)햇터라이프_햇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북극항로 시범 운항… 동남권 대도약 실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신년사

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수립하고 부산항, 세계 최대규모 항만 목표 친환경·스마트 기술로 경쟁력 강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 대행)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차관은 5일 부산동구 해수부 부산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해 23일 부산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

또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LNG, 메탄 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벙커링 시설을 조성하고,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해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수산업 혁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어선 크기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절반 가까이 조정·철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식업은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 해역에서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 양식업의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다”며 “수산식품 수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국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발굴로 어촌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해양레저, 해양치유, 생태공원 등과 같은 지역별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선정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상풍력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와 함께 1단계 예비지구를 지정·발표하고,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 과실·오류까지 관리하고, 여객선, 항만, 어선, 해양수산사업장의 맞춤형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해 해양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국적 고용위기 닥치면 ‘고용유지지원금’ 늘린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 적용 범위 늘리고 요건 단순화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겪어온 복잡한 요건을 정비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기존의 ‘특정 지역·업종’ 외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단순화했다. 현행 제도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

이 가능해져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이 일원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하며, 피보험자 1인당 1일 6만8100원, 연 180일 한도로 운영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자체 소액집행 잔액 기준 확대

기획예산처, 예산 집행지침

5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집행 잔액 기준이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체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지원 보호 ▲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 잔액’ 기준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에 전담관 배치 등 조치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력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이라며 각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겹쳐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도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발생이 많은 경기, 충청, 전라지역은 지역재난대책본부를 통한 가금농장 1대1 전담관 제도를 적극 활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식품부

해 방역지역 관리와 가금 농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16일 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신란계 농장 539곳에 전담관을 1대1로 지정·배치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결에 대해 재의요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달 1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학생·교사와 함께 재의요구 입장을 밝히고, 폐지 효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과 제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폐지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라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의요구의 구체적 사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조례 차원에서 모두 없애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ih@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왼쪽)이 5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조준 인천병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조준 교수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조준 건국대 의대 교수를 신임 인천병원장으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단 소속 병원 중 처음으로 정부(인사혁신처)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조준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국내·외 고난도 환자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의료 전문가로, 건국대병원 진료 협력센터장, 흉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운영과 대외 협력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갖춘 의료 경영 리더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병원장 후보를 더욱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민간 전문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며, 공개모집과 겸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을 결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라면·과자서 항암제까지… 내수 정체 돌파구는 ‘바이오’

식품업계, 고부가가치 전환

발효 기술로 헬스케어·소재 확장
오너3세 전면에, 신사업 경영 시험
항암제·바이오 소재까지 확대
글로벌 성장 노린 장기 전략



식품업계가 오너3세를 필두로 바이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리온은 2018년부터 바이오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항암제, 결핵 백신, 대장암 진단기트, 치과 질환 치료제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삼양식품과 농심도 오너 3세를 바이오 등 신사업에 배치해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섰다. 삼양식품은 전병우 전무를 헬스케어BU(비즈니스 유닛)장으로 발탁해 바이오·헬스케어 신사업을 이끌게 했다. 앞서 전 전무는 2023년부터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집중해왔다. 농심도 신상열 부사장을 미래사업실장으로

선임해 대체식품과 신성장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같은 인사를 두고 본업의 안정성에 안주하기보다 중장기 성과가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경영 역량을 검증받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식품업계가 바이오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 인상 외에는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한 축으로 키워온 대표적인 사례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아미노산 등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하이트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레드바이오’로 나뉜다. 현재 실적의 대부분은 그린바이오에서 나오지만, 장기간 축적한 미생물·균주·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화이트와 레드 바이오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CJ제일제당이 생산하는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Polyhydroxyalcanoates)’는 토양과 해양 등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글로벌 탈석유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2030년대 중반 8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은 PHA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바이오는 기존 식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발효·미생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화와 헬스케어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성장 요인도 갖추고 있다.

대상은 최근 독일 의약용 아미노산 전

문 기업 ‘아미노(Amino GmbH)’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글로벌 의약 바이오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와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 지역에 연구소와 3곳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제약사 및 환자식업체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해 온 점이 강점이다.

대상은 이번 인수를 통해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확대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 진입한다. 단백질·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세포배지, 부형제, 시약용 아미노산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식품 사업만으로는 구조적 성장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며 “바이오는 초기 투자 부담은 크지만, 기술 축적 이후에는 식품과 전혀 다른 수익 곡선을 그릴 수 있어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의 확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행운 잡아라”… 현대百, 흰디와 함께하는 신년 체험 축제

전국 15개 점포서 신년 행사 진행
NFC 보물찾기 참여형 이벤트 운영
용돈봉투·리유저블백 등 굿즈 증정
퍼레이드·공연으로 가족 고객 공략

현대백화점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체 캐릭터 ‘흰디(Heundy)’를 앞세운 대규모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열고 신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18일까지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신년 테마 행사 ‘2026 흰디 프레젠톤(HEENDY'S PRESENT)’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흰디가 전하는 행운의

메시지’를 주제로 백화점 내·외부를 익살스러운 흰디 그림으로 꾸미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행사는 ‘흰디 보물 찾기’다. 고객이 점포 곳곳에 숨겨진 지정 장소 3곳을 방문해 현대백화점 앱으로 NFC 태그를 스캔하면 스템프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스템프를 2개 모으면 흰디 용돈봉투를, 3개를 완성하면 흰디 리유저블백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또한 참여한 모든 고객은 ‘흰디 미니 골드바(1g)’ 경품 행사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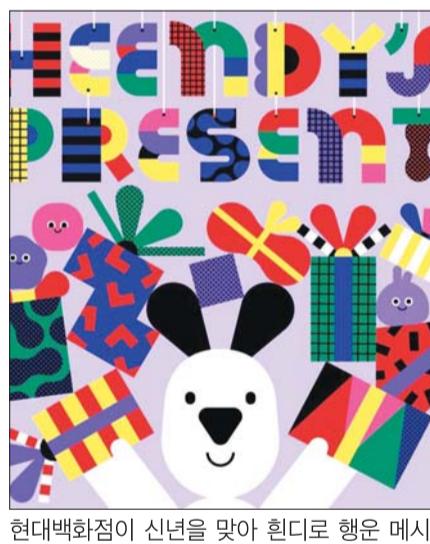
현장 이벤트도 풍성하다. 오는 10일

신촌점에서는 흰디 캐릭터가 매장을 순회하며 고객들에게 AI 새해 운세와 선물을 전달하는 ‘행운 복주머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점포별로 퍼레이드, 별문화, 버스킹 공연 등 가족 단위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과 소소한 행복과 행운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체 캐릭터인 흰디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감성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현대백화점이 신년을 맞아 흰디로 행운 메시지를 전한다. /현대백화점

CU, ‘득템시리즈’ 5년만에 1억개 팔렸다

가성비·생활 밀착형 상품 전략 주효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초저가 자체 브랜드(PB) ‘득템시리즈’가 2021년 선보인지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단순 계산 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개 이상 구매한 수치다. 특히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판매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23년 1400만 개 수준이던 연간 판매량은 2024년 300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00만 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득템시리즈의 성공요인은 ‘가성비’와 ‘필수템’ 전략에 있다. CU는 즉석밥, 계란, 두부 등 구매 빈도가 높은 필수 식재



CU가 초저가 자체 브랜드인 ‘득템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1억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CU

료부터 닭가슴살, 햄버거 등 안주류까지 생활 밀착형 상품군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을 낮췄다. 지난해에만 ‘특란 10입’, ‘반값 빼식먹터’ 등 약 30종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손종욱 기자

이달 매직나우·매직배송 전 채널 적용

홈플러스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온라인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시간 내외 배송인 쿠커머스 ‘매직나우’와 당일·맞춤 배송인 대형마트 ‘매직배송’에 각각 적용되며, 배송비 절감뿐만 아니라 금액 대별 장바구니 할인 쿠폰까지 더해 고객 체감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말 진행한 무료배송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쿠커머스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신규 고객 유입도 33%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우선 쿠커머스 서비스인 ‘매직나우’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의 스프레스의 신선식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며, 4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홈플러스 조혜영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은 “더 많은 고객이 홈플러스 온라인의 고품질 상품과 편리한 배송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CJ온스타일

‘몰입형 커머스’ 도전

김창옥과 강연 쇼핑 결합

CJ온스타일이 소통 전문가 김창옥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강연과 쇼핑을 결합한 신개념 콘텐츠 커머스를 선보인다. CJ온스타일은 6일 저녁 7시 35분, 신년 첫 콘텐츠 IP(지식재산권)인 ‘대국민 쇼핑 솔루션 더 김창옥 라이브’를 첫 방송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김창옥의 시선으로 브랜드와 상품을 재해석해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머시브(Immersive·몰입형)’ 형식을 도입했다. 방송은 TV와 모바일은 물론 OTT 플랫폼인 티빙(TVING)에서 동시에 송출돼 접근성을 높였다. 티빙 시청 중에도 클릭 한번으로 CJ온스타일 앱과 연동되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종욱 기자

“살아남기 위해 변화 적응·주도하는 조직 돼야”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 체제

뷰티·HDB 사업부, 5개 조직으로
‘닥터그루트·유시몰’ 핵심 운영
해외별 전략·고객경험 고도화

LG생활건강이 올해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업체질 개선 작업에 나선다.

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새해를 맞아 4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등 올해 경영 전략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0월 조기 인사로 LG생활건강에 합류한 이선주 신임 대표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특히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편, 고성장 지역 집중 육성, 고객 경험 혁신, 수익성 구조 재조정 등에 중점을 둔다.

우선 LG생활건강은 브랜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고성장 브랜드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뷰티사업부와 HDB(홈케어&데일리뷰티)사업부를 럭셔리뷰티, 더마&컨템포러리뷰티, 크로스카테고리뷰티, 네오뷰티, HDB 등 5개 조직으로 재편했다.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

기존 HDB사업부에 속한 닥터그루트와 유시몰을 핵심 브랜드로 운영하는 ‘네오뷰티’사업부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고급 더마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의 경우 북미 시장 내 온라인몰에서 성과를 거두며 오프라인 매장으로 브랜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23년 11월 북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후 2년 만인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 증가 목표를 수립했다.

난해 10월부터 북미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 있다.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은 국내 CJ 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숍, 일본 화장품 시장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올리브영 내 유시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면서 K뷰티 대표 구강관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LG생활건강은 해당 브랜드들이 ‘하이테크 뷰티 헬스케어’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해외 지역별 집중 전략을 펼친다. 특히 각 나라의 대표 커머스 채널을 공략하며 디지털 비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 일본 등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북미 지역과 일본에서 각각 4201억원, 3235억원 등의 누적 매출을 올렸다.

LG생활건강은 고객 경험도 고도화한다. 마켓 트렌드와 기술 인텔리전스 역량을 강화해 ‘와우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과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임팩트 있는 ‘히어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수익 수익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선주 LG생활건강 신임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 된 시대”라며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도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선주 대표는 “LG생활건강은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뷰티·건강 기업(Science-Driven Beauty & Wellness Company)’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역량과 인프리를 집약해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생활건강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모두 동반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4조 8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2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다. 누적 영업이익률은 5%에서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케라시스 허브 제품군으로 저자극 모발 관리

에경산업은 고급 헤어관리 브랜드 케라시스에서 허브 제품군으로 ‘알파인 허브 샴푸와 컨디셔너’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스위스 알프스 고산지 대에서 자란 애델바이스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초정 탄산수, 시카 성분 등을 더해 민감한 두피와 손상된 모발을 관리해 준다.

특히 샴푸는 풍성한 거품으로 설계돼 강력한 세정력을 갖추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했다. 컨디셔너는 무실리콘 처방에도 부드러운 사용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선호하는 향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알프스의 겨울을 연상시키는 시원한 아쿠아 향의 ‘아쿠아 블룸’, 알프스 눈 속에 피어난 꽃을 상징하는 핑크 로즈 향의 ‘프레쉬 로즈’, 자스민 향의 ‘자스민 머스크’ 등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케라시스 ‘알파인 허브 샴푸와 컨디셔너’ 3종
/에경산업

아모레퍼시픽, ‘CES 2026’서 혁신 기술 ‘스킨사이트’ 공개

美 MIT 연구팀과 공동개발 플랫폼 피부노화 원인 분석·맞춤관리 제시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6~9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CES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혁신 기술 ‘스킨사이트’를 공개한다. 스킨사이트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자 피부 플랫폼이다. 피부 노화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관리를 제시한다. 패치형 감지 장치를 피부에 부착해 다양한 환경에서 피부 변화를 주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협업한 ‘인공 지능(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과 ‘AI 뷰티 미러’를 선보인다. 카메라 기



아모레퍼시픽이 ‘CES 2026’ 현장에 삼성전자와 협업한 AI 뷰티 미러를 설치했다.
/아모레퍼시픽

반광학 진단 기술을 활용해 피부의 모공, 흉터, 색소, 주름 상태를 정밀 분석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3770개의 마이크로 레드 LED를 탑재한 메이크온 브랜드의 ‘온 페이스 LED 마스크’, 데일리 피부 맞춤 케어 디바이스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등과 연계되면서 피부 개선법을 즉각 완성해 준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붉은 말의 해’ 한정판 선봬

신제품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셀렐리안24에서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을 붉은 말의 해 한정판으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제품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50ml를 한 데 담았다. 해당 제품은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춰 보다 건강한 상태로 전환하는 ‘저속노화’에 도움을 준다.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피부선을 탄탄하게 정돈해 얼굴 전체를 끌어올리는 등 3단계로 작용한다.

이번 한정판에는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새해와 앞으로의 변화, 도약에 기대감을 시작적으로 표현했다.

셀렐리안24 담당자는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은 피부 탄력을 복합 관리해 맨 피부에도 생기 있는 광채를 선사할 것”이라며 “올해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역동성과 멈추지 않는 에너지에서 차 안해 앞으로도 탄력 관리를 포함해 피부 고민에 맞춘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체질개선으로 핵심사업 집중”

포트폴리오·운영 체계 재편

조아제약이 2026년을 재도약의 해로 선언하며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조아제약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성환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는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우수 의약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2026년을 실질적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아제약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와 운영 체계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사업 구조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약사 파트너십 강화 ▲해외

수출 확대 ▲위수탁 사업 고도화 ▲아이커머스 채널 다각화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는 기존 강점인 약국 영업망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생산 인프라를 활용한 위수탁 사업,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커머스 채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한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사업부별 책임 경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 임직원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체질 개선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구조 혁신으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은 물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쟁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라네즈 매일 바르는 물광 피부 보습·장벽 강화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신제품 ‘워터뱅크 아쿠아 페이셜 세럼’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매일 바르는 물광 부스터 샷’으로 피부 보습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등 전문적인 피부 관리 효과를 갖췄다.

특히 각질 및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7.7% 애씨드 콤플렉스(PHA, AHA, BHA)를 함유한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PGA, PDRN, 히알루로닉 세라마이드 등을 체방한 ‘하이드로 인퓨션 샷’ 성분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했다.

물광 효과를 주는 스킨부스팅 특수 관리와 인체 적용시험을 비교한 결과, 피부 결, 윤기, 보습, 장벽 강화, 붉은기 개선(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은기) 등 5개 항목에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산뜻한 질감과 부드러운 제형을 설계해 매일 사용 가능하다.

라네즈 브랜드 관계자는 “기존 뷰티 대표 제품군인 ‘워터뱅크’의 효능을 극대화한 제품”이라며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모이스춰크림 등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수분과 광채를 동시에 구현하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라네즈 ‘워터뱅크 아쿠아 페이셜 세럼’.

/아모레퍼시픽

이뮨온시아 ‘댄버스토투그’, 희귀의약품 지정

ENKTL 1차 치료제

유한양행 자회사 이뮨온시아는 신규 면역형 암제 ‘댄버스토투그(개발명: IMC-001)’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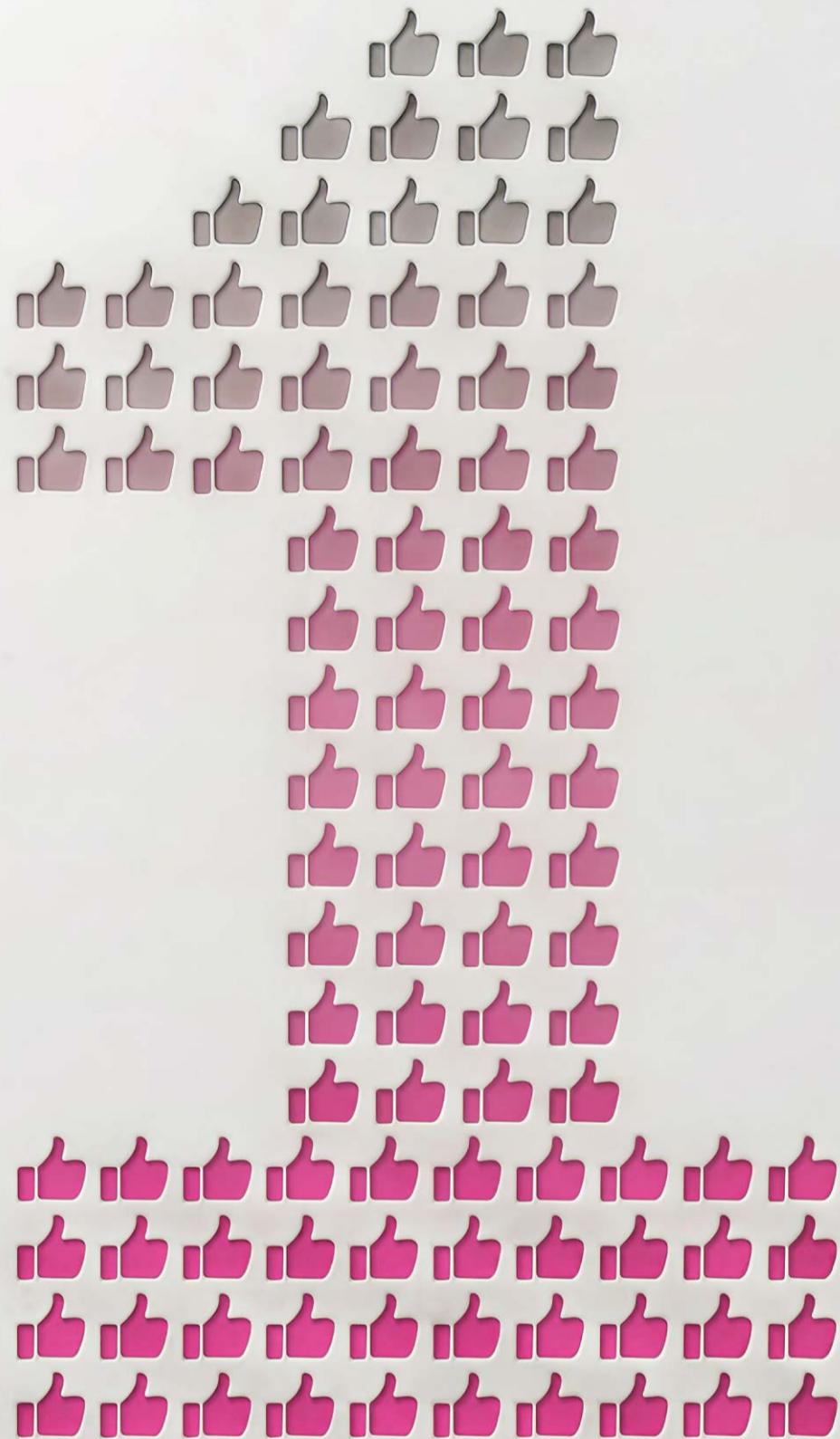
이뮨온시아가 개발한 ‘IMC-001’은 재발·불응성 NK/T 세포 립프종(ENKT-L) 1차 치료제로 쓰인다.

이 물질은 PD-L1을 표적하는 항체다. 암세포 표면의 PD-L1과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 결합하는 것을 막는다. PD-L1과 PD-1의 결합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암세포가 체내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피하도록 돋는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IMC-001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 허가 심사 기간이 일반 심사 대비 최대 25%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뮨온시아는 오는 2030년 이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고객님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KNPS) 1위

★★★★★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1위

★★★★★

국가고객만족도
(NCSI) 공동 1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만족도 1위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장국환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유동한 선수, 하지유 선수, 박진영 KB금융지주 브랜드담당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G그룹, 새해맞이 산행… 경영목표·전략 공유

KG그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그룹 임직원과 함께 새해맞이 산행을 진행하고, 2026년 재도약을 위한 경영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2026년 사업계획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산행에는 꽉채선 회장을 비롯해 가족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건강과 안녕,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KG그룹



스타벅스코리아, 청소년 희망카페 '달다' 오픈

스타벅스 코리아는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손잡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능 기부 카페 '15호점 청소년 희망카페 '달다''를 오픈했다. 5일 '달다' 오픈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KT&G
인니 공장 'ISO 45001' 인증

KT&G 인도네시아 공장이 국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2024년 러시아, 튀르키예 공장이 동일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장이 추가로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KT&G는 해외에서도 국제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KT&G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의 ISO 45001 인증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KGC인삼공사
부여공장 봉사단 국무총리표창

KGC인삼공사는 부여공장 사회봉사단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5기 국민주천포 상수여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KGC인삼공사 부여공장 사회봉사단은 2010년부터 부여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으며 누적 기부금, 지속적인 현장 봉사,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봉사단은 부여공장 임직원 3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금융수장 총집결… “‘K자형 회복’ 만들어 나갈 것”

범금융 신년인사회

구윤철 부총리 등 생산적 금융 강조
벤처·혁신자본 세제 인센티브 강화

경제·금융당국수장(F4)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는 부분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형일 제1차관 대독)은 "자금흐름을 첨단전략산업, 벤처, 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3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AI를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정·관계 및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

C), 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K자형 회복에 대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장과 열린 소통을 강화해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다고 예상되는 만큼 정부, 중앙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교촌에프앤비, 지난해 9.2억 규모 사회공헌 활동

치킨 나눔 등 따뜻한 정 전해



장을 돋기 위해 2022년부터 이어온 '아동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아동보육시설 및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

게 1만 1000마리의 교촌치킨(약 2만 명 분)을 전달했다. 약 2억 3000만 원 규모로 진행된 이 활동은 신학기와 어린이날 맞아 아이들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치킨 소스 바르기 체험 등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나눔의 의미를 확장했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훌로서기를 돋는 '자립준비 지원사업'에는 2억 1000만 원이 투입돼 총 174명의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했다. 교촌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돋는 '마음채움 프로젝트'를 연간 30회 진행하며 아이들의 내

면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바르고 봉사단'에 참여해 특수학급 학생들의 체험활동 멘토로 나서는 등 '나눔의 선순환'까지 더해져 진정한 자립으로 나아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치킨을 매개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촌스러버 프로젝트'는 올해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촌스러버'가 되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촌은 1억 5000만 원 규모의 활동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응원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주배경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이밖에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과 피해복구를 위해 애쓴 소방관, 경찰, 민간 지원봉사자를 위한 지원과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전달 등으로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상생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휴롬, 상업용 착즙기 디자인 우수성 입증



휴롬의 상업용 착즙기 CE50(사진)이 '2025유러피안제품디자인어워드'와 '2025일본굿디자인 어워드'를 연속 수상했다.

5일 휴롬에 따르면 자사의 첫 상업용 착즙기 CE50은 기술을 집약시킨 전문가용 하이엔드 모델이다.

정밀한 기술을 고급스럽고 간결한 형태로 구현해 두 디자인 어워드에서 실용성, 독창성, 혁신성, 기술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요진건설산업 ◇사장 승진△건설사업본부 정찬욱

◆한림제약 ◇회장 △김정진 ◇상무 △문은경(매디칼부) △박형진(병원사업본부)

◆종근당(승진) ◇전무 △이규웅 ◇상무 △이주원 △이창식 ◇이사 △심영곤

△윤수미 △이진오 △송지수 △정병무

◆종근당바이오(승진) ◇이사 △김진오

◆경보제약(승진) ◇사장 △김태영 ◇전무 △채현숙 ◇상무 △김병옥

◆월요신문(승진) ◇편집국장 이상훈

△정치사회문화부 부장대우 박윤미

◆뉴스퀘스트(신규) ◇부사장 △편집인

△나영필(승진) ◇편집국장 △김동호

부음

▲양병호(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관리국장)씨 별세, 안효순 씨 남편상, 양수현 양 부친상 = 5일 오전 1시 25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전북 남원시 보절면 선영. (02)440-8800

‘국민배우’ 안성기 별세… 향년 74세



이 있으며, 여러 시대의 감독들과 협업해 왔다. 2019년 혈액암 진단 후 투병 생활을 했으나, 2023년까지 부천판

는 폭넓은 장르 접근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 냈다. 이러한 그의 삶은 한국 영화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국민배우'라는 수식어가 본질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대종상·백상예술대상·청룡영화상·영평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그가 거머쥔 트로피만 40개가 넘는다.

안성기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스크린 쿼터 사수 등 다양한 영화계 사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오래 연기하는 게 꿈"이라며 성실함과 존중받는 배우를 지향했고, 후배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한국영화계에 큰 손실이며, 그의 업적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

/최규준 기자 ch9720@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휴남동 서점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홍보를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김여진 표혜미 | 염승윤 류하윤 김상민 최윤재 | 지강혁 엄정욱 한재우 김도경 | 현지수 한혜란 이정원 김정은 | 임영식 강동철 공민규 김한길

주최·제작  국단지우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민주당의 '돈천', 2026년 지선은 얼마?

<錢薦>



기 고
배 지 환
수원시의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시민의 '표'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보면, 이제 표가 아니라 추악한 '뒷돈'을 동력 삼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성과 대가성의혹이 짙은 '공천청약금'이 '공천현금'으로 미화되어 불리는 현실은 정당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본래 공천(公薦)이란 '공평한 공(公)'에 '천거할 천(薦)'자를 쓴다. 정당이 공적인 책임 아래 인물을 공정하게 추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1억 원 수수 의혹은 민주당의 공천이 그 의미를 지키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공적 가치는 사라지고 뒷돈 거래가 그 자리를 대신한 '돈천(錢薦)' 시스템 아래에서, 주권자의 선택권은 시장 바닥의 매물처럼 팔렸다.

최근 민주당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22년 4월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 나 좀 살려달라"며 피해호소인을 자처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부적격 후보가 단수 후보로 결정되며,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연봉 7000만 원 수준의 시의원 자리를 두고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거론됐다는 의혹은, 통상적인 정치 참여의 범위를 넘어선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시의원직이 공적 봉사라기보다 사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지위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천 과정을 통해 권력자들과 관계 형성을 염두에 둔 구조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결국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시의원직을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이 문제가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공천 현금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수사는 의뢰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병기는 공심위 간사라는 요직을 맡았다.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타인을 겸증하고, 자수하듯 살려달라고 하던 사람은 금품 제공 의혹 당사자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기 막힌 상황은 금권 정당 시스템 즉 '돈천'의 완성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 부도덕한 의혹의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선우의 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검 도입을 포함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물론, 공천 관리와 겸증의 연관이 있는 당 지도부와 책임자들까지 성역 없는 전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주권자의 심판이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돈에 매수되어 무너졌다면, 이제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절실하다. 주민 여러분의 매서운 눈과 소중한 한 표가 정치의 타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수원시의원(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막차 이후, 남은 질문

기자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이제 '막차'도 끊겼네요."

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한 뒤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와 달리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슈퍼365' 계좌 혜택이 종료(기존 고객은 유지)되면서, 수수료 우대 이벤트는 국내 증권업계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금융당국의 문제의식과 시장의 반응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 당국은 과열된 마케팅을 문제 삼았지만, 투자자들이 받아들인 변화는 '마케팅 자제'가 아니라 '해외투자에 대한 경계 강화'로 집중됐고 향간에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줬다.

흥미로운 건 뒤이은 투자자 반응이다. "애초에 이벤트 때문에 해외주식 한 건 아니다", "막차 끊겼다고 가던 길을 멈추진 않는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조치가 투자 행태를 뒤집어엎을 만큼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향한 자금의 방향은 수수료 몇 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더 나은 실적, 더 빠른 성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결정'이었다.

지금 국내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그 사이 급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저력은 다시 증명되고 있고, 코스피는 4400선을 넘어섰다. '국장은 안 된다'는 말이 자동 반사처럼 나오던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국면이다. 시장은 살아 있고, 몇몇 기업은 결과로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필요한 건 '해외투자를 줄여라'는 신호가 아니라 '국장으로 돌아올 만하다'는 근거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주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규제가 아니라 신뢰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불공정거래가 국내 주식시장에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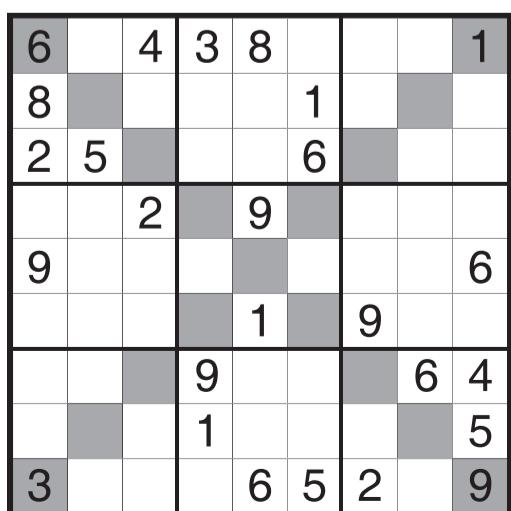
최근 당국이 말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역시 마찬가지다. 구호만으로는 '프리미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를 잡고,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이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작동할 때 비로소 설득력이 생긴다.

수수료 막차는 끊겼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던지는 질문은 따로 있다. 돌아오라고 부를 만한 '의'를, 지금 우리는 만들어두었는가.

/zelkova@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내수 한계 직면한
식품업계
바이오 사업 강화

L1

LG생활건강
이선주 대표
“변화 주도해야”

L2



현장 택한 '영업사원 1호'… 신뢰로 증명한 단단한 금융

CEO 와칭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그늘이 금융권 전반을 짓누르던 시기였다. 은행 창구에는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인과 대출 연장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숫자 하나, 결재 도장 하나가 기업의 존폐와 가계의 생계를 가르던 시간이었다.

그 치열한 현장에서, 한 사람은 늘 책상보다 현장을 먼저 찾았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스스로를 '은행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했다. 금융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금융이 필요한 사람 곁에 서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였다. 여신 심사 서류가 쌓인 사무실보다 중소기업 공장과 영업점 창구를 자주 찾았던 이유다. 함 회장의 명함에는 대표이사 회장 직함 바로 아래, '영업사원' 네 글자가 뚜렷하다.

◆ 책상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그는 위기일수록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금융관은 현장에서 단단해졌다. 대출은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담보로 한 약속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황 기에도 무작정 문을 닫기보다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에는 시간을 주고 숨을 틔워주는 선택을 했다. 단기 손익만 놓고 보면 부담이었지만, 지역 경제와 거래처를 함께 살리는 길이 결국 은행의 길이라는 판단이었다.

은행 내부에서도 그의 원칙은 분명했다. 성과는 중요하지만, 과정이 무너지면 금융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규제 대응'이 아니라 '업의 기본 체력'으로 강조했다.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 보이지 않는 균열을 먼저 점검하라는 주문은 조직 전반에 반복됐다.

충남 논산 경상고를 졸업한 함 회장



약력

1956년 충청남도 부여군 출생
강경상업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2012년 하나은행 부행장 선임

2015년 KEB하나은행장 취임

2018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선임

2022년 하나금융지주 회장 취임

위기일수록 숫자보다 사람 우선으로 지역경제·기업 함께 살리는 길 걸어

영업·친화력 갖춘 금융권 '고졸신화'
실험 아닌 축적·신뢰로 성장 이끌어
2022년 취임 후, 역대 최대실적 기록

비은행 부문 수익구조 다변화 목표
금융환경 변화에 사업전반 혁신 필요
자산관리 역량 확보, 리스크 관리 나서

은 금융권의 대표적 '고졸 신화' 주인공이다. 그의 영업력과 친화력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주 회장에 오른 이후에도 그의 화두는 변하지 않았다. 영원한 영업과 끊임없는 혁신이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비은행 부문 확장, 글로벌 전략 같은 거대한 과제들 속에서도 기준은 같았다.

그는 "이 결정이 고객과 시장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가 먼저다. 혁신을 말하되 속도를 경계했고, 확장을 논하되 무리한 도약은 피했다. 금융은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축적과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회려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금융에서는 그 '회려하지 않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위기국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숫자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결정, 조직과 시장을 동시에 보는 균형감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로 쌓였다.

◆ 2026년 비은행 부문 강화

함 회장이 취임한 2022년 3월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실적 면에서 분명한 성장 궤적을 그렸다. 취임 첫해인 2022년, 하나금융은 연간 당기순이익 3조570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후 실적 흐름의 기준점이 됐다.

5일 네이버페이 증권 컨센서스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 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2억원(9.23%)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환경에서도 최대 실적을 다시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의 '연속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 회장의 올해 목표는 비은행 부문의 성장이다.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대로는 안된다!'며 자산관리 역량의 확보와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 투자은행(I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 프로세스의 재설계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중심의 기존 수익 구조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는 비은행 부문을 보완적 영역이 아닌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과 자산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전제로 한 질적 성장을 통해 그룹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은행 부문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여부가 함 회장 체제의 다음 성과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네번째)이 서울 명동 사옥 앞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그룹 경영진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둘째줄 가운데)이 스마트 홍보대사들과 함께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메트로 한줄뉴스



▲남자 U-20 아이스하키, 크로아티아 12-2 격파
…세계선수권 첫 승
▲알파인스키 라스트, 월드컵 대회전·회전 연이
틀 석권…시프린 연속 우승 저지

/사진 뉴시스

▲하이원리조트, 에스와이 꺾고 2연승…PBA 팀
리그 5R 선두 도약

▲봄슬레이 남자 4인승 김진수팀, 월드컵 5차 대
회 10위

▲차세대 K-공연예술 주자 육성…청년 교육단원
525명 모집

▲“관광 스타트업, 세계로” 여행 예약 플랫폼 클
록, KOTSA와 맞손